

한옥 전통찻집, 구세의원 기념품판매장 함께 오픈 문화 거점공간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개장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개장식

2020년 강화군이 매입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가 지난 19일 개장식을 열었다.

동광직물은 한때 종업원 200여 명이 근무하며 강화군 직물산업을 대표했던 기업지만 폐업 후 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로 방치돼 있었다. 이에 군은 옛 동광직물 공장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 문화관광거점으로 탈바꿈 시켰다.

강화군은 이와 더불어 함께 추진한 옛 구세의원 건물을 ‘기념품 판매장’으로, 한옥 건물은 전통찻집으로 함께 오픈하여 지역주민이 모여 운영해 나아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개장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관광객 이동이 한창인 지금 관광객을 유치한 강화읍 원도심으로 이끌어 강화의 차별화된 ‘지역다움’을 알려 강화읍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자신했다.

유천호 군수는 “옛 동광직물은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할 근현대 자산”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한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 거점공간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개장식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동광직물 옛터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강화군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8일 ‘2023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입증대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이번 보고회는 과년도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인 9개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징수 실적을 분석하고, 각 부서별 체납 발생 원인과 문제점,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군은 앞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부동산이나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재산 및 압류 자산으로 충당이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을 진행해 올 한 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태산 부군수는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징수여건이 좋지 않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원이다”라며, “관련 부서들과 함께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오는 7월 31일까지, 만 19세 이상 900명 대상 강화군,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자료로 이용된다.

조사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표본가구로 선정된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1 대 1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올해는 5월부터 7월까지 조사 시기를 앞당겨 실시해 12월에 조사결과를 공포한다. 이에 차년도 보건 사업에 가장 최신의 통계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주민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 258개 보건소가 함께 매년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행태 등을 파악하는 전국 동시 국가승인통계조사이다.

대상자들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여 지역의 건강통계를 생산해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2023년 5월에 발간된 ‘2022년 강화군 지역사회 건강 통계’ 결과에 따르면 혈압, 혈 당수치 인지율 및 걷기 실천율, 건강생활 실천율이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어 만성질환 예방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율 및 음주율 행태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가 이어지다 전년 대비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는 보건 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조사원이 방문하는 경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PHOTO NEWS



청소년자원봉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활동



여성폭력 근절캠페인



확대간부회의

강화군, 확대 간부회의 개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3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부군수, 국·과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회의에 앞서 유천호 군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현충일 행사 추진과 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해주고, 우리 군이 현재 신속집행 인천시 1위를 하고 있으나 6월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 2025 APEC 정상회의 등 인천유치 서명운동

▲현충일 태극기 달기 및 추념식 행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책임제 실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적극추진 ▲행락철 대비 위생 관리 취약시설 지도·점검 추진 ▲매개모기 방제를 통한 말라리아 관리사업 등 다양한 현안 및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유천호 군수는 “양사면 청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사회복지사 고용 시 전문가 면접 등을 통해 채용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미래 비전 제시 및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035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장기종합발전 보고회

군은 지난해 3월부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 읍·면 인터뷰, 지역주민·전문가 간담회 등을 실시 후 실무 TF운영을 통해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에 군은 균형 발전 강화, 일자리 창출 강화, 소통과 화합 강화의 3대 목표와 ‘삶이 행복해지는 PLUS UP 강화’를 비전으로 한 핵심 사업 및 세부사업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실무 TF단(51명)과 군청 핵심 업무 팀장들로 이루어져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에 대해 토의하는 워크숍 방식으로 추진했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 보완하여 확정 후 2035년까지 발전전략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지침서로써 장기종합발전계획을 활용할 예정이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5일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2035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35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이 기반이 되어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미래발전을 선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군민 복지와 함께 행복지수도 UP!



길상면 주민복합센터 준공식

길상면 주민복합센터 준공

지난 16일 길상면의 오랜 숙원사항인 길상면 주민 복합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천호 강화군수, 배준영 국회의원,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 박용철 인천시의원 등을 비롯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길상면 주민복합센터는 2021년 8월 공사를 시작하여 총 사업비 8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연면적 2,178㎡, 지하 1층 ~ 지상 3층 규모다.

주요 시설로는 민원실, 회의실, 다목적홀, 체력단력실, 동아리실 등을 마련해 양질의 행정서비스 및 주민 소통의 공간 제공을 위한 최신 편의 시설을 갖추었다.

유천호 군수는 “새로이 완공된 길상면 주민복합센터는 한층 더 향상된 주민화합의 장과 지역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되고 협소한 면 청사와 주민자치센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민 소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갑곶리 현대 경로당 개관

이어 18일에는 강화읍(읍장 주우종)에서 현대 경로당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유천호 강화군수와 장기천 강화군 노인회 지회장 등 관내 기관·단체장 및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화읍 갑곶리 현대경로당 개관식

현대 경로당은 갑곶리 642-2번지에 지상 1층, 연면적 99.76㎡의 건물 2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약 6개월간의 공사 끝에 건립되었다.



길상면 주민복합센터 준공식

유천규 현대 경로당 노인회장은 “마을 주민들의 바람이었던 넓은 공간을 갖춘 경로당이 개관되기까지 도움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유천호 군수는 “우리 강화군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보다 좋은 생활환경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화읍 갑곶리 현대경로당 개관식

장애인 복지·편의시설 점검

군은 이달 말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현장조사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현장조사’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1998.4.11.) 이후 건축행위가 일어난 시설로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이 대상으로 시행되며 총 565개소다.

접근로 및 주차구역, 출입구 및 계단, 승강기, 점자블록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 조사 후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고 거주 및 이용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총 1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에 나섰다.

특히 거주 이용자의 권익과 인권침해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적법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강화군, ‘소멸 고위험지역 쉼터 조성사업’ 추진



쉼터 조감도(교동면 난정리)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생활권 내 쉼터를 조성하여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군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 위험이 높은 도서 지역에 ‘소멸 고위험지역 쉼터 조성사업’ 추진하여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교동면 난정리 일원과 삼산면 석모리 삼산 저수지 일원 2개소로 약 7,500㎡규모에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원을 투입해 올해 7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산책로와 운동시설 등 휴게 시설과 수목, 초화를 식재하여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이 편히 휴식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어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 인구소멸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진강산 군 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1일 ‘제1회 강화군 군 소음 대책 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은 소음분야 전문가, 변호사,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진강산 군 사격장 소음 지역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431명이며 보상금액은 약 5천5십만원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한 피해 보상금은 이달 말까지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신청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랜기간 군 소음으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 남동구 192개소 경로당 강화섬쌀 공급업무협약



남동구 경로당 강화섬쌀 공급 협약식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5일 강화군 농협쌀조합과 「남동구 경로당 강화섬쌀 공급」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유천호 강화군수, 박종효 남동구청장, 김영운 강화군농협

쌀조합 대표가 참석했다.

지난해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하는 등 농가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쌀 재고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군과 남동구가 뜻을 모은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5월부터 남동구 경로당 192개소에 강화섬쌀 35톤을 공급하면서 강화섬쌀의 안정적인 유통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함께하기로 한 것이다.

유천호 군수는“남동구 경로당에 최상 품질의 강화섬쌀을 공급해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쌀 팔아주기에 동참해 주신 남동구청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강화섬쌀’은 청정지역인 강화에서 풍부한 일조량 속에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토양에 마그네슘 함량이 많아 품질이 좋고 밥맛이 뛰어나다. 

인천강화췌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동행 순찰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동행 순찰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동행 순찰

인천강화경찰서에서는 지난 25일 범죄예방 및 주민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행동동행 순찰을 실시했다.

‘행복동행 순찰’은 지역주민, 협력단체와 함께 순찰차가 들어갈수 없는 좁은 골목 및 범죄가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행복 동행 순찰은 코로나 엔터믹 선언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경 합동순찰이며 강화경찰서 직원과 범죄예방진단팀(cpo), 자율방범대 및 각종 협력단체를 포함한 총 50여명이 참여했다.

강화서는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을 기록한 최초의 사진...신미양요 사진전 강화역사박물관, 『신미양요 사진전』 개최



강화역사박물관, 신미양요 사진전 개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3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강화역사박물관에서 『신미양요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신미양요 당시 진무영 중군으로 순국하신 어재연장군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사진전에는 펠리체 베아토(Felice Beato)의 사진 43점이 신미양요 전투가 일어난 일자에 맞추어 전시되어 있다.

베아토는 조선을 촬영한 최초의 사진기자로 신미양요 당시 미국의 기함 콜로라도호에 동승하여 조선과 미국의 충돌 과정을 기록한 미 해군 원정대의 공식 사진가로 이탈리아 태생의 영국 사진작가다.

그가 찍은 사진들에는 1871년 5월 16일 일본 나가사키항의 미국 아시아 함대의 모습부터 물치도(舊 작약도) 정박, 조선대표단의 방문, 초지진과 덕진진 전투, 그리고 광성보 전투와 탈취당한 수자기를 비롯해 6월 12일 미군의 철수까지 약 한 달여간 신미양요 전쟁 상황이 담겨있다.

군 관계자는 “신미양요 당시 순국하신 어재연 장군 탄생 200주년을 맞아 준비한 이번 사진전은 한편의 전쟁 다큐멘터리로 신미양요의 시작과 끝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전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 새마을회,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으로 행복 두배!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강화군 새마을회(회장 조인술)는 지난 25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을 실시했다.

강화읍 남·여새마을지도자(읍 협의회장 신봉기)가 주관이 되어 노후화된 지붕으로 해마다 누수와 누전의 위험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봉사를 추진했다.

지붕 교체 뿐 아니라 실내 벽지 교체, 외관 페인트 작업도 병행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지원을 받은 대상자 손 모(강화읍)씨는 “그동안 형편이 되지않아 집 수리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렇게 새마을 단체 회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집 수리를 해줘 새집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조인술 회장은 “깨끗하게 수리된 보금자리에서 행복을 느끼는 이웃들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지원을 받은 대상자의 이웃은 “집이 몰라보게 깨끗해졌다, 이웃들 까지도 기분 좋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한결같이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강화군 새마을 남·여지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 새마을회에서는 8년 넘게 ‘사랑 사랑 집 고쳐주기’ 행사를 통해 매년 5~6가구의 취약계층을 위한 집고쳐주기 봉사를 진행중이었다. 

민·관·군 합동, 방역기동반 ‘말라리아 예방’ 방역 돌입



민·관·군 합동발대식

지난 19일 말라리아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2023년 민·관·군 합동 방역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하절기 방역 활동에 돌입했다.

민간위탁 방역사업자 및 군부대 방역반, 보건지소 방역담당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발대식에는 올바른 매개모기의 방제요령

및 장비 사용, 방역소독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강화군은 17개 민간위탁 방역반과 보건소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주요 모기 서식지 및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친환경 분무소독과 유충구제제 투여 등 10월 말까지 하절기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이미 지난 겨울부터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에 유충 방제 작업을 비롯한 동계 방역사업을 시작했다. 200여 개 모기 퇴치기와 18개소에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모기기피제를 포함한 개인방어 물품을 전 가정에 배부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말라리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는 물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거주지 주변의 고인 물제거 등 모기가 성장할 수 있는 유충 서식지 관리에 협조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 최백하 기자

인천시, 강화군 주요 사업 예산 228억 원 편

인천시 편성보다 100억 원 이상 증액 / 민선 8기 역점사업의 지속성 및 전세 사기 피해자 민생 예산 반영



박용철 의결위 위원장(사진제공 인천시의회)

19일 인천시는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14조 7,143억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시가 편성한 추경안보다 5.7% 증액된 금액이다.

시의회는 유정복 시장(민선 8기)의 핵심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예산 1035억 원을 우선 확보하는 한편, 다음달 출범하는 재외동포청과 관련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특히 1회 추경예산안에 60억 원으로 편성됐던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을 3억 원이 늘어난 63억 원으로 정했다. 이는 ▲대출 이자 지원(38억5천만 원) ▲이사비 지원(7억5천만 원) ▲월세 지원(17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또한 ▲봉수대로~중동대로 연결도로 공사 시설비(5억 원) ▲인천상륙작전 기념 포럼(2억9천만 원) ▲참전국 주한대사 초청행사(8천7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보강(7억7천만 원)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6억3천597만 원) 등도 반영됐다.

강화군 주요 사업 예산은 인천시 편성보다 100억 원 이상 대폭 증액된 228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국지도 84호선 건설(160억 원) ▲화개정원 제2주차장 건설(16억 5,000만 원) ▲주문연도교 건설(40억 원) (10억 5,000만 원 증액) ▲농산물유통 저온저장고 지원(7억 1,000만 원) ▲방치 스테이트처리 지원(2억 원) 등이다.

박용철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확보에 주안을 두고 심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소득 상관 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 시술비 지원



인천광역시청 청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7월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여 왔는데, 고액의 시술비가 필요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전격 결정했다.

2021년 말 기준 인천의 난임부부는 11,977명으로 2018년(9,835명) 대비 21.7% 증가했다.

이번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면서 시는 1차 추경예산을 통해 12억 7천 5백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 이는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950여 난임부부가 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건강보험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이며, 난임 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한도로 지원한다.

한편, 시는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 치료를 올해부터는 난임부부의 남성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관내 지정 한방의료기관 중 본인이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한의약 치료를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난임부부들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소중한 아이를 건강하게 품에 안기를 바란다.”며, “인천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체육회, 쌀 180포(1.8톤) 기탁



강화군체육회 이웃돕기 성품 기탁식

지난 15일 강화군체육회(회장 박영광)가 강화군(군수 유천호)에 쌀 10kg 180포를 전달했다.

강화군체육회는 제4대 강화군체육회장(박영광) 취임을 계기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으며,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체육회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쌀은 그동안 코로나 확산 및 국내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에 골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박영광 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역주민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체육회의 뜻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체육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천호 군수는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주신 강화군체육회에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체육회의 온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화전문건설협의회·강화경영자협의회, 어려운 이웃 집고쳐 주기에 앞장



기탁식 (강화경영자협의회)



기탁식 (전문건설협의회)

강화전문건설협의회(회장 김종열)와 강화경영자협의회(회장 한광열)는 지난 16일 강화군(군수 유천호)에 각각 성금을 기탁했다.

강화전문건설협의회가 1,000만 원, 강화경영자협의회가 300만 원을 기탁했으며, 성금은 주거 취약계층 집 수리에 쓰일 예정이다.

자력으로 집 수리를 할 수 없는 강화읍과 하점면 주거 취약 가구의 어려움을 전해 듣고 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두 협회가 십시일반 뜻을 모았다.

두 협회는 “이번 계기로 좋은 마음이 이어져 관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이웃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심과 더불어 관내의 어려운 이웃 돕기를 위해 늘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이웃 돕기를 실천하여 따뜻한 강화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섬김치”강화군 착한기업 1호로 선정 현판 전달



착한기업 현판 전달식(인천시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좌), 강화섬김치 김경호 대표(우))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8일 강화군 착한기업 1호로 강화섬김치를 선정하고 ‘우리군 착한기업’ 현판을 전달했다.

강화섬김치는 정기적인 기탁 이외에도 2012년부터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관내 푸드마켓 과 요양시설, 양로시설에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군은 ‘강화섬김치’를 강화군 착한기업 1호로 선정하고 ‘우리군 착한기업’ 현판을 전달했다.

김경호 대표는 “기업의 소재지인 강화군에서 뜻깊은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꾸준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유천호 군수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주신 강화섬김치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오늘의 나눔 활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이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자원봉사센터, 교통안전 안녕 캠페인

“우리 아이들을 배려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 “교통 안전” 안녕 캠페인 진행

강화군자원봉사센터는 23일 합일초등학교 일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배려해 주세요” 라는 슬로건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번 안녕 캠페인은 강화경찰서, 합일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연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2030 속도 준수, 무단횡단 금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피켓을 이용해 어린이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가시적 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학부모님은 “요즘에 학교 앞에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라며, “우리 학교 앞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와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 규칙에 대해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캠페인 활동을 많이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교통안전 규칙에 관련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1

불은면, 강화나들길 챌린지 시작점 화도돈대 신규 화단 조성

광성보 일대 화단 3,000본 식재, 화사한 봄꽃 향연



불은면 광성보 일대 새봄맞이 꽃 식재



불은면 화도돈대 신규화단 조성

강화군 불은면(면장 김용수)이 ‘제2탄 강화나들길 발밤발밤 걸어요’ 워크온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는 나들길 2코스에 신규 화단을 조성했다.

이에 2코스 시작점인 화도돈대 쉼터에 화단을 조성하고 팬지와 가자니아, 석죽 등 초화 800본 및 라일락 100주를 식재해 더욱 아름답게 조성하였고 지난 15일 불은면에서는 광성보 및 대청교 등 10개소에 봄꽃을

식재했다. 그중 광성보 일대 화단에는 비올, 석죽 등 3,000본을 식재했는데, 광성보 역시 ‘강화나들길 발밤발밤 걸어요’ 챌린지 코스 중 하나다.

김용수 면장은 “워크온 챌린지가 진행 중인 나들길 2코스에 아름다운 화단을 조성해 나들길이 한층 더 화사해졌다.”며 “챌린지 참여자들이 불은면 쉼터에서 시원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1

- 최벽하 기자

가슴이 땡! 뚫리는 이곳! 화개정원

서북부 최전방 강화 화개정원으로 오세요!

칼럼

질병이 바꾼 역사



김 학 준

전) 서울신문 기자

위키백과는 이를 자세히 분석했는데 양이 실로 방대하다. 일단 큰 맥락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적 관점에서 조명했다. 아울러 국제관계, 인간의 심리, 불평등 문제, 지역별 영향에 관해서도 비중을 두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코로나가 역사를 바꿨다는 얘기다.

질병이 역사를 바꾼 사례는 적지 않다. 독일의 역사학자 로날트 게르슈테는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여기에 실상이 잘 드러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페스트(흑사병)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지만, 사망자 수만 본다면 중세 유럽에서 유행한 페스트가 가장 큰 재앙이었다. 이 질환이 기승을 부렸던 1347년부터 1351년까지 4년 동안에만 2000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사망한 것이다.

한창 기세를 떨칠 때는 한 사람이 밤중에 페스트로 죽자 장례를 치르러 온 친구 2명과 기도차 온 신부, 시체를 나른 사람까지 모두 4명이 다음날 저승으로 갔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알베르 카뮈가 쓴 책 '페스트'에도 당시의 참상이 적나라하게 표현돼 있다. 프랑스 도시 '오랑'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사망하자 관이 부족해 관을 재활용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페스트가 신이 내린 천벌이라고 생각해 속죄의 의미로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하거나 기도를 했다. 또 개나 고양이와 원인이라고 생각해 죽이고, 심지어는 집시와 유대인들이 질병을 몰고 왔다고 학살하기도 했다. 중세에 흔히 벌어진 마녀 사냥 중에서도 대표적이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전혀 효과가 없었기에 큰 혼란에 빠졌다.

그 당시 의사들은 페스트 감염을 피하기 위해 새의 부리 같은 기괴한 마스크를 쓰고, 그 안에 강한 향이 나는 약초를 채워 넣었다. 환자에 대한 치료법은 더욱 가관이었는데 불에 달군 쇠로 가래뿔을 찌르고 정맥을 짜서 피를 뽑거나, 심지어는 오줌으로 목욕을 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엉터리 치료법은 쇠약해진 환자를 더 빨리 죽게 만들 뿐이었다. 페스트가 쥐에 의해 전파된다는 것은 1890년대 가서야 밝혀졌다.

천연두는 1만년 전부터 인류를 괴롭혀온 전염병이다. 천연두가 유달리 악명을 떨친 것은 1500년대에 유럽인들이 남아메리카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무기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불과 600명의 병사를 이끈 코르테스(스페인 귀족 출신)가 1520년에 멕시코 아즈텍 제국(인구 500만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멕시코 원주민(인디오)들이 천연두에 감염돼 대거 사망했기 때문이다.

코르테스의 병사들은 천연두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는 원주민들에게 고의로 천연두 균을 퍼뜨려 원주민의 95%가 천연두로 사망했다. 한 병사는 다음과 같은 목격담을 남겼다. "가옥과 논밭, 거리의 광장이 원주민 시체로 가득찼다. 그들의 시체를 밟지 않고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역시 스페인에서 온 피사로는 1532년에 234명의 병사만으로 천연두와 내전으로 이미 초토화된 잉카 제국(페루 일대, 인구 1200만명)을 단숨에 정복했다. 남미 제국들은 사실상 전염병으로 무너진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 5월 8일 천연두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퇴치되었음을 선포했다. 비극으로 얼룩진 천연두 역사를 종식시킨 날이다.

아이러니 하게 전염병이 사회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페스트가 그 경우다. 페스트를 피해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신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종교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된다. 중세는 모든 영역이 종교적 관점에 매몰됨으로써 경제적, 지적, 문화적 퇴보를 일으켜 흔히 '암흑시대(Dark Ages)'로 불렸는데 비로소 출구를 찾은 것이다.

또한 페스트로 인구가 줄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자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호전됐다. 농부나 수공업자들은 유리한 위치에서 지주와 협상할 수 있게 돼 중세시대 봉건제도(넓은 땅을 가진 영주가 자신의 땅에서 일하는 농노들을 지배하는 제도)가 무너지는 계기가 됐다.

사람들은 또 새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모여들었고, 귀족 출신이 아니더라도 돈을 많이 모아서 신분을 높인 사람들이 늘어났다. 유럽의 '르네상스(인간성 회복을 위한 문화혁신 운동)'가 시작된 것이다. 결국 페스트로 인해 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코로나가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선 떠오르는 것이 비대면 사회를 겪으면서 인간을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깨달았다는 점이다. 흔히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말하지만, 추상적 개념을 넘어 '연대와 협력이 생존의 조건'이라는 것을 피부로 공감하게 되었다. 약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 역시 배가되었다. 또 만남과 소통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뉴스에서나 보았던 화상회의 같은 것을 나와는 동떨어진 세상의 일로 여겼던 사람들이 일상적인 것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대면 교육과 진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도 등장했다. 사이버 대학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이 있었지만, 전체 교육현장으로 확산돼 교육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다.

비대면 진료(원격 진료)는 의료계의 반발로 당분간 실현이 쉽지 않겠지만,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과 당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코로나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당연히 인류에게 닥친 비극이고 부정적인 현상이지만, 인간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과 긍정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감히 '코로나의 긍정적 효과'라고 이름붙인다. 그토록 당했는데 얻은 것이 있어야 덜 억울하지 않겠는가. **1**

기고

이경수

몽골의 침략과 강화 천도



고려궁지

최우의 결단, 천도

1232년(고종 19) 2월, 개성 조정에서 강화 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고종 임금과 신하들 대부분이 천도에 부정적이었습니다. 6월 16일, 최우가 자기 집 세간살이를 강화로 옮깁니다.

《고려사절요》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적었어요. “최우가 왕에게 ... 강화도로 행차할 것을 청하였으나, 왕이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하였다. 최우가 녹전거(수레) 100여 대를 빼앗아 집안의 재물을 강화도로 옮기니, 개경이 흥흥하였다.”

다음 날인 6월 17일, 최우는 강화에 궁궐을 짓기 시작합니다. 7월 6일, 고종도 어쩔 수 없이 개성 궁궐을 떠나 강화로 향합니다. 7월 7일, 칠월칠석날, 고종이 송해면 승천포에 도착합니다. 비가 하염없이 내렸습니다. 궁궐을 막 짓기 시작했으니, 그곳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임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객관(客館)으로 들어갔습니다. 객관은 객사라고도 하는데 출장 온 관리나 사신 등이 머무는 공적 공간입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천도였습니다. 하지만 강화도 조정이 점차 안정되면서 임금도 신하들도 천도하길 잘했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규보는 이런 시를 지어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오랑캐가 아무리 사납다지만 / 어떻게 이 물을 뛰어 건너랴 / 저들도 건널 수 없음을 알기에 / 와서 진치고 시위만 한다오 / 누가 물에 들어가랴 타이르겠는가 / 물에 들어가면 곧 다 죽을 건데...”

고려궁지는 어디인가

고려궁지(高麗宮址)! 고려궁궐이 있던 터[址]라는 뜻이죠. 1964년에 사적으로 지정된, 강화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정말 고려궁지가 고려 대몽항쟁기에 궁궐이 있던 터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강화의 읍지에 고려 궁궐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몇 해 전 고려궁지를 발굴했을 때, “여기가 고려궁지다!” 확신할 수 있는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학자 중에서 “지금 고려궁지는 고려궁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짚어봅시다. 김노진의 《강화부지》(1783) 등에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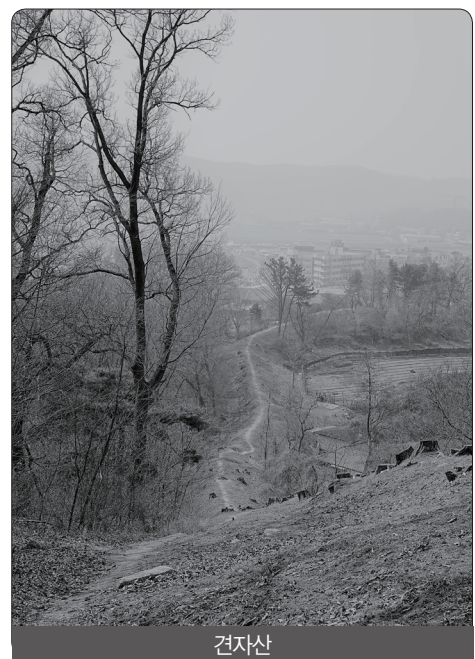
궁궐의 위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在府東南亭子山外(재부동남정자산 외)” 부(府)는 강화유수부를, 정자산(亭子山)은 전자산을 말합니다. 풀이 하면, 고려궁궐이 강화유수부 동남쪽 전자산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산평에 궁궐이 있었다는 기록도 보입니다.

《강화부지》 등의 기록이 틀린 거라고 단언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현재의 고려궁지가 고려시대 궁궐이 있던 터, 맞는 것 같습니다.

천도 초인 1234년(고종 21)에 궐남리(闕南里) 수천 채의 집이 불탔습니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가 이 끔찍한 화재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궐남리’는 궁궐의 남쪽 마을을 가리킵니다. 당시 전자산 외곽은 갯가라서 수천 채 집이 몰려 있을 여건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궐남리는 동락천 남쪽 그러니까 지금의 신문리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동락천 북쪽 관창리 지역에 궁궐이 있었다고 해야 궐남리 ‘수천여가(數千餘家)’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궁궐 외에 별궁(別宮)들도 있었습니다. 전자산 쪽에 별궁이 있었는데 이후 별궁이 궁궐로 와전되어 전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자산 쪽에 무신집권자 최우의 집도 있었는데, 그게 또 궁궐로 잘못 전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 고려궁지가 궁궐터로는 너무 좁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는 고려 궁궐의 뒷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원 정도의 기능을 한 것 같아요. 남쪽 경계는 용흥궁공원 김상윤 순의비쯤이었을 것이고요. 관련 학자들 대개가 현 고려궁지 아랫마을(궁골)이 궁궐의 중심 영역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강화도서관 뒤편 도로 발굴 때 궁궐의 일부로 보이는 건물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전자산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유산센터(전 강화고려역사재단)에서 고지형 분석을 통해 고려궁지의 위치를 추정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공개했습니다. 5분여 정도의 동영상인데 유익합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인천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를 검색하셔서 영상콘텐츠에 있는 ‘강화도성 궁궐’을 보시면 됩니다.

내성·외성·중성

자연조건이 아무리 방어에 유리하다고 해도 결국은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방어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강화도 조정은 내성, 외성, 중성을 쌓았습니다. 궁궐이 완공된 때가 1234년(고종 21)쯤입니다. 이 무렵 내성도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외성은 동쪽 해안에 쌓은 것 같습니다. 《고려사》에 외성 축성 시기가 언급됐는데 이쪽에서는 1233년(고종 20)이라고 나오고 저쪽에는 1237년(고종 24)이라고 나옵니다. 같은 책에 다른 연대가 나와서 좀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성 공사를 1233년에 시작해서 1237년에 끝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1233년에 다 쌓았고 1237년에는 보강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편 《강화부지》(1783)는 1233년(고종 20) 12월에 외성을 쌓았고 1237년(고종 24)에 외성을 증축(增築)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중성은 내성·외성보다 늦게, 1250년(고종 37)에 쌓았습니다. 최우의 아들인 최항이 집권할 때였습니다. 선원면에 대문고개가 있지요. 대문(大門)이 있던 고개라는 뜻입니다. 거기 고려 중성의 출입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중성 곳곳이 발굴되면서 그 실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성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간척 이전 강화도 동쪽 해안 지형은 몹시 복잡해서 배를 달만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구태여 해안가에 길게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요.

그러면 《고려사》 등에 나오는 ‘외성’은 무엇인가? 외성이 곧 중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디서는 외성을 외성이라고 쓰고, 어디서는 중성이라고 써서 별도의 성곽으로 보이지만, 실체는 ‘외성=중성’이라는 주장입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강화의 성곽, 몽골군에게는 정말이지 부담스러운 시설이었습니다. 몽골군이 물에서 고려 전역을 휩쓸었어도 산성 전투에서는 꽤 고전했습니다. 1259년(고종 46) 고려와 몽골이 화친조약을 맺을 무렵 몽골군은 가장 먼저 강화도의 성들을 부수게 했습니다. 동원된 고려의 병사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성곽을 허물어야 했습니다.



고려 중성 발굴 현장(사진출처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황제국, 고려

길고 긴 전쟁, 참으로 힘겨운 세월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백성과 군사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몽항쟁이 그렇게 대단해? 어차피 진 거잖아. 몽골에 항복했잖아?”

예,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장기항전 덕분에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고려인의 항쟁이 계속되자 몽골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려에 거듭 양보해야 했습니다. 고려 고종을 대신해서 아들(원종)이 항복하러 갔을 때 쿠빌라이는 그야말로 버선발로 달려 나와 원종을 맞았습니다. 고려의 항복에 감사했습니다. 같은 항복이라도 병자호란 당시 ‘삼전도의 굴욕’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화도 조정이 건재함으로써 고려가 살았습니다. 고려가 살았기에 조선이 있었고 조선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고려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임에도 천자의 예(禮)를 쓰고 있다. 무릇 큰 모임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으니, 이는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이다.

《고려사절요》 충렬왕 27년(1301) 4월.

충렬왕 때 몽골이 고려에 일종의 경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천자 즉 황제의 나라에서만 만세(萬歲)를 부를 수 있고, 왕의 나라에서는 천세(千歲)를 부르는 것인데 고려가 건방지게 만세를 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천세” 해야 할 고려가 어찌하여 “만세” 했는가. 사실 고려는 황제국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하, 세자 대신에 폐하, 태자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고려 임금은 자신을 가리켜 ‘짐(朕)’이라고 했는데, 이 역시 황제국의 격식을 따른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주로 ‘과인(寡人)’이라고 했어요. 이호예병형공, 조선은 6조라 하였으나 고려는 6부라고 했습니다. ‘부’는 황제국의 관칭입니다.

고려 초 광종 때인 960년 11월, 《고려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개경을 고쳐 황도(皇都)라 하고, 서경을 서도(西都)로 삼았다.” 개성을 황제의 도읍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강도(江都)도 황도? 그렇습니다. 대몽항쟁기 강화 역시 황도(皇都)였던 것입니다.

고려가 황제국이었다, 대단하다, 강화가 황도였다, 대단하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는 지배층뿐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도 스며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 속에 고려인으로서의 당당함, 자존감이 꿈틀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몽골에 맞서 장기항전을 가능하게 했던 숨은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료를 다시 봅시다. 고려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는 시기가 충렬왕 때입니다. 몽골에 항복하고 그들의 간섭을 받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고집스럽게 만세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의 기상이라고 할까, 그런 걸 느끼게 합니다.

이제 참고로 고려시대 무신정권 시기와 대몽항쟁 시기를 비교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려에 무신정권이 선 것은 1170년입니다. 이때부터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현, 최우, 최항, 최의, 김준, 임연, 임유무, 이렇게 11명의 집권자가 나왔습니다. 최우 때 몽골 침략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지요. 김준 정권 때인 1259년에 몽골과 화의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유무 때인 1270년에 개경 환도가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고려에서 무신정권도 끝납니다. 무신정권은 1170년부터 1270년까지 백 년간이었습니다. ▣



고종사적비(송해면 고려천도공원)

칼럼 · 기고

인공 지능 시대의 교육의 과제



이 대 형

인천광역시교원단체
총연합회장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추월하고, 의학, 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기업 오픈에이아이(open AI)는 최근에 GPT-4를 공개했다. 챗지피티(Chat GPT)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고, 논문을 작성하며, 그림까지 그려낸다. 또 자기 소개서를 작성해 주고, 열댓말만 넣으면 소설과 시를 순식간에 완성해 준다. 챗지피티(Chat GPT)는 미국 모의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 생물학올림피아드에서 상위 1%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많은 직업이 위협받고 있다. 다방면에서 사람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하는 현상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얼마나 다양한 분야의 많은 직업이 사라지거나 모습을 달리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텔레마케터나 의사, 법조인, 회계사, 사무원 등 다양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을 듣게 된다. 의사라는 직업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의사의 일은 병의 진단, 처방, 수술 등이다. 현재 환자와 병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서 진단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했다. 예전에는 의사가 환자의 각종 데이터와 증상을 보고 진단을 했다면, 지금은 기술이 환자의 영상 및 데이터를 기존에 쌓인 데이터와 비교해 진단한다. 많은 데이터를 일시에 비교해 진단함으로써 오진율을 낮춘다.

그렇다면, 의사가 과연 필요 없어질까? 단지 하는 일들이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와 소통하는 기술이 더 요구된다. 환자가 말로 설명하는 증상을 데이터화하고 추출된 결과를 판단해 최종 진단을 내리며,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역할이 커질 것이다. 또 전공 분야에 한정해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닌 다양한 분야의 의사들과 협업하는 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타 분야 전문의들과 처방책을 의논하거나,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기존 빅데이터에서 나온 결과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질병을 발견하거나 연구하는 일도 중요해진다. 타 분야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분야에 접목하는 새로운 시도들도 장려될 것이다. 공감, 협업, 해결책을 찾기 위한 소통의 능력은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인간에게 더욱 요구되는 역량이다.

우리 아이들이 인공지능의 세계에서 잘 살아갈 수 있

도록 돕는 것이 현 시대 교사들의 책무이다. 인공지능과 잘 공존하는 방법은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을 찾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것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질문이다. 인공지능은 답을 찾아내는 데는 매우 탁월하지만 스스로 질문하지는 못한다. 질문하려면 대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하며, 세밀한 관찰과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이 필요하다. 질문은 어떤 과학적 지식이나 사실에 비판적인 관점으로 사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질문이 기존의 지식들을 새롭게 구성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로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것엔 또 무엇이 있을까? 두 번째는 진정성을 담아 내는 일이다. 일을 할 때 영혼을 담아 정성을 들이는 것은 사람만 할 수 있다. 만약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들,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일들을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신한다면, 앞으로는 영혼과 정성 그리고 감동을 전달하는 능력이 일을 하는데 중요한 자질이 된다. 앞으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품질은 단순히 정확하고 편리하고 빠른 것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가치를 담아내길 바라고, 진심으로 감동을 느끼기를 원한다.

교사들은 수준 높은 질문으로 아이를 이끌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좀 더 오래 책상 앞에 앉아 있게 할지 고민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공부할 때 아이의 눈이 더 반짝일지 고민해야 한다. 아이의 반응을 살피며, 아이가 더욱 고양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또한 교사의 진정성을 느끼게 해서 아이들의 진정성을 자연스럽게 길러 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향해 공감하고, 배려하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진정성의 가치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부모님 폐렴구균 예방접종, 꼭 챙기세요!
 그만큼 위험한 폐렴, 노인의 사망률 일반 성인의 70배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1만 8854명(통계청)으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이어 사망원인 4위를 기록했고, 2022년 한국의 사회지표의 사인별 사망률(10만명 당 사망자)에서 폐렴(44.4명), 암(161.1명), 심장질환(61.5명)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던 노인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민간 지정 병·의원(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폐렴에 걸린 고령인 5명 중 1명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 339건 중 65세 이상 연령대는 약 60%인 203명 *(59.9%)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은 치명적이므로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 현황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339	46	5	3	7	20	31	24	203

* 2022년 수치는 잠정통계로 추후 변경 가능(자료원: 감염병 누리집 www.kdca.go.kr/npt)

페렴이란?

폐렴은 세균에 의해 호흡기관지 이하 부위의 폐조직에 염증반응과 경화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원인의 대부분은 폐렴구균입니다.

감기가 심해지면 폐렴이 되는건가요?

감기는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기지만 폐렴은 대부분 세균 감염에 의해 생기므로, 원칙적으로 감기가 폐렴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기에 의한 합병증에 의한 세균감염으로 폐렴, 중이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기와 폐렴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폐렴 초기 증상이 가벼울 때는 감기와 증상 구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감기는 상부 호흡기(목, 코)에 생기는 급성 질환으로 콧물, 코막힘, 두통, 인후통, 기침 등이 나타나지만 대부분 특별한 치료없이 저절로 1주일 이내에 좋아집니다. 하지만 폐렴은 38도 이상의 고열과 화농성(누런) 가래와 함께 가슴통증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렴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38.3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화농성 기관 및 기관지 분비물이 있는 경우 흉부X-선상 폐침윤 및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를 통해 폐렴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폐렴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폐렴은 감염성 질병이므로 원인균을 박멸하는 항생제 치료가 치료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원인균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일이 걸리며, 검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험적 항생제 치료에 의존하고 있습

니다. 보통 폐렴 구균이 가장 흔한 균이기 때문에 폐렴 진단시 폐렴 구균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진단 및 치료시기가 늦어지게 되거나, 임상적 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초기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폐렴 증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폐렴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폐렴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폐렴구균 및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또한 금연 및 올바른 손씻기도 폐렴 예방 및 개인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무료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전 꼭 확인해주세요!

- 과거에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접종한 경우 더 이상 접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 방문할 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지소, 진료소 등 포함)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합니다.
- 보건소와 병·의원에 전화로 예약이 가능하고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병)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장수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중 '23가 다량 백신(PPSV23)'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

지침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량 백신(PPSV23) 1회 1회

참조기관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 보건소장(구)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예방접종 센터의 지정 가능

의료기관 방문 시 예방접종 행동 수칙



1. 건강상태가 좋거나
예방접종 6주



2.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
무도 마스크 착용



3. 손수건 등
30초 이상 손소독



4. 이력서, 방문하는 곳의 내역서
접종 내역서 등 50%



5. 접종 후 관찰대사 15-30분
비밀리에 유상관찰 관찰 후 귀가

신 간 안 내

철종의 눈물을 씻다

강화도령 이원범의 삶과 그의 시대사



‘강화도령’이라 불리는 조선시대 철종 임금의 삶과 그 시대상을 다룬 이경수 선생님의 저서가 출간을 앞두고 있다. 제목이 ‘철종의 눈물을 씻다’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철종은 후대 사람들의 오해로 눈물을 흘리고 있고, 저자는 진실을 밝혀 그 억울한 눈물을 씻어 주고자 한 것이다.

우리에게 철종은 일자무식의 나무꾼이었다는 선입견이 있다. 1960년대 <강화도령>이라는 영화와 드라마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이런 선입견은 《조선왕조실록》 등 철종과 그 시대에 대한 기본 사료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내린 흥미 위주의 평가였다. 《철종의 눈물을 씻다》를 읽으면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철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여기저기에 보인다. 70여 항목의 작은 주제로 나누어 읽기 쉽게 풀어 주었으니 굳이 긴 호흡이 아니어도 편안하게 저자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사실(史實)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가 시대 상황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역사는 켜켜이 먼지 앉은 과거가 아니라 변주되어 흐르는 강물입니다.

이제 조선 세도정치기의 임금, 철종을 불러봅니다. 강화도에서 귀양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그 강화도령, 이원범입니다. 지금, 상식처럼 여겨지는 철종의 형상이 실제와 어느 만큼 간극이 있을지 확인해 봅니다. 그가 살아낸 전후 시대를 오묘조조 살펴보고 또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도 다시 생각합니다.

저자 • 이경수 / 정가 • 22,000원 / 출간일 • 2023년 5월 15일 / 서점(온라인) 구매



보다 나은 인쇄와 광고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합니다!

명함 · 달력 · 상패 · 스티커 · 전단지 · 청첩장 · 포스터 · 책
봉투 · 인쇄 · 복사 · 코팅 · 팩스 · 제본 · 행사홍보기념품 제작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SS 삼성인쇄광고기획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